한국禪 1200년

한국선 대중화 현장

ART禪 · APP禪 · Street禪… 새 수행 발견

간화선 대중화의 필요성이 강조된지 10여 년이 흐른 지금, 선수행은 새로운 변화 양상을 띄고 있다. 산중에서 선사들의 수행과 함께 도시에서는 현대 IT와 예술이 맞닿은 새로운 수행문화로 전개되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Street 산중서 거리로, 선수행의 변화

2019년 10월 5일 강남 한복판에서는 이색적인 대회가 열렸다. 한국참선지도자협회(회장 각산)가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강남한류 명상페스티벌을 연 것이다. 청명한 날씨 속에 이날 명상페스티벌에 참가한 1000여 대중들은 각산 스님으로부터 화두를 받아 입정에 들었다.

시민선방 등 전국 각지에 대중들을 위한 선수행처는 많지만 이처럼 대중들이 선수행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대중들이 선수행을 접할 수 있는 계기는 소중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2020년에는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새해에는 새로운 페스티벌이 기다리고 있다.

한국참선지도자협회장 각산스님은 "참선과 명상은 번뇌에서 벗어나 완전한 행복을 얻는 과정"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참선, 명상을 통해 새로운 삶의 즐거움을 누렸으면 한다.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참선을 할 수 있기에 조금씩 해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9년 10월 5일 서울 가로수길서 열린 페스티벌 당시 모습.

참선지도자협회는 지난해 11월 22일 해인사 선림원에서 3일간 참선지도사 자격증 1급 과정으로 집중수행을 실시하기도 했다. 집중수행에서는 불교수행법과 정신의학 등 다양한 강의를 통해 선수행과 현대과학과의 접점도 함께 모색돼 눈길을 끌었다.

Art 예술과 융합된 선문화 진화

선수행을 넘어 선문화가 예술작품과 만나는 것 또한 일반 대중들이 선수행에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이사장 혜거)는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탄허기념불교박물관에서 '한국禪-잇:다'를 주제로 전시회를 열었다. 이 전시회서는 예술작품으로 선을 접할 수 있도록 참선 수행과 명상을 대표하는 스님들의 작품과 현대미술작가들의 예술 작품이 함께 선보여 의미를 더했다. 석주 스님, 성철 스님, 월하 스님, 중광 스님, 한암 스님, 법정 스님, 탄허 스님 등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들의 글씨와 그림을 비롯해 김중만, 박혜숙, 김영진, 김윤 작가 등 12인의 작품 100여 점이 함께 전시됐다.

명상지도자협회 이사장 혜거스님은 "선은 개혁이다. 지금까지의 나를 바꾸는 일"이라며 "선과 명상의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함께 이어져야 한다"고 전시 의미를 전했다.

이와 함께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대표 의정)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근현대 선지식들이 남긴 선서화 100여 점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선서화전을 열기도 했다. 전시에는 경봉 스님의 '무진장', 청담 스님의 서예 '불불불', 서옹 스님의 서예 '수처작주', 송담 스님의 '달마도' 등이 선보여 화제를 모았다.



지난해 10월 20일 탄허기념불교박물관서 열린 선과 현대미술의 융합 전시전.

App '화두' 제시 애플리케이션 눈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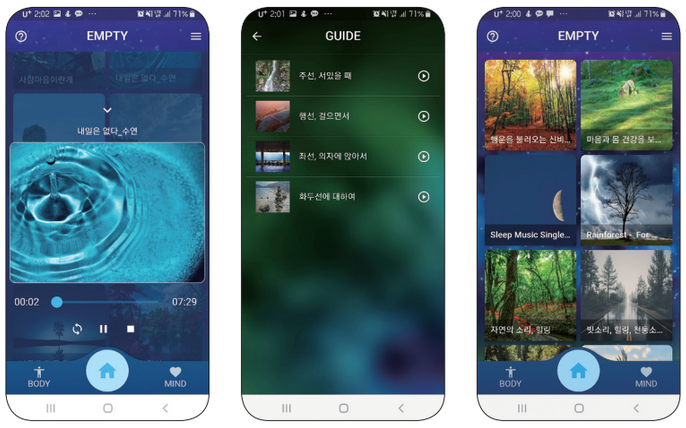
전국선원수좌회가 선보인 스마트폰 앱 '엠티(Empty)'는 간화선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 있다.

지난해 6월 20일 출시된 엠티는 선수행 앱으로 한국 전통선에 기반해 마음수행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최근에는 개인 프로필 기능도 업로드 했다.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 의정 스님은 "좌선해서만 참선하는게 아니고 다니면서 일하면서도 화두만 들면 선"이라며 간화선을 생활화하기 위해 '엠티(Empty)'를 개발한 배경을 밝혔다.

2년간 연구·개발을 거친 '엠티(Empty)'는 비교적 짧은 시간인 10분간 화두참구를 하며 간화선에 대한 지도 설명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 뭣꼬'라는 화두가 탑재돼있으며, 고선 스님의 '이별통보', 수연 스님의 '내일은 없다', 월암 스님의 '구경행복' 등 선사들의 마음치유 선시낭독도 함께 들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음식마음수행법, 슬리핑 뮤직 등 실생활에서도 활용 가능한 음원 등을 함께 제공한다.



현재 개발사는 '엠티(Empty)' 홈페이지도 개발하고 있으며 2021년 1월 말 홈페이지 오픈과 함께 고민상담소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이 고민상담소에서는 수좌 스님들이 직접 수행자들의 고민에 대해 온라인으로 답한다.

Youtube 온라인 '참선' 콘텐츠 봇물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는 언택트 선수행도 하나의 방편으로 떠오르고 있다. 각자 공간에서 참선수행하는 불자들을 위해 온라인 비대면으로 지도점검해 주는 활동들이다.

재가자 생활참선 문화를 이끌고 있는 불교인재원도 최근에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수행 지도에 나섰다. '생활참선 공부' 네이버 카페에서는 특히 참선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강의하고 즉석에서 질문도 바로 받는다. 그날 온라인 강좌가 끝나면 복습용 영상을 카페에 별도로 게재한다.

이 같은 방식은 쌍방향 소통이란 점에서 간화선에서의 스승과의 법담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장점이 있다. 댓글을 통해 수행 중에 든 의문 등을 남기고 이에 대해 지도하는 강사가 답해준다. 다만 동시시청으로 인한 1:1이 아닌 1:다수의 지도가 차이점이다.

유튜브 채널을 통한 선수행 관련 콘텐츠도 늘고 있다. '법상스님의 목탁소리'의 경우 '참선과 명상 차이와 주의할 점' '생활 속 선수행 방법' 등이 2만회가 넘는 조회를 기록하며 인기를 얻었다.



선과 명상의 차이와 입문과정을 설명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법상 스님의 목탁소리'.

해운정사 채널의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의 바른 참선법', 불광미디어의 '월암 스님의 시공간 경계를 허문 간화선 수행법', BBS불교방송의 '간화선 대법회, 선사들의 즉문즉설' 등도 일반 대중들이 간화선을 비롯한 선수행에 친밀하게 접근하도록 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

2021 謹賀新年 신축년

한국불교조계종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 봉

종도일동

KBB한국불교방송주식회사, KBB한국불교방송신문, 월간시사뉴스, KBB한국불교방송자문위원회, KBB한국불교방송불자총연합천불회

사)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총본산
총무원 : 경북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4 문경백봉사 TEL 1577-1016, 054-571-6973,1030(협의회) / 팩스 : 054-571-7498
방송국 :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545번지 예림빌딩 606호 TEL 1670-2010